

# 음부즈만 개선 과제 124건... 규제 혁신으로 中企 부담 완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신산업·신기술분야 규제 개선 집중  
韓·越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

중소기업 음부즈만이 규제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산업과 신기술분야 규제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9일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음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

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 즈를 정기 추진해 총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 가운데 중기 음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과제의 51.5%를 차지

한다.

한국·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FTA) 편지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가 대표적이다.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두고 캐시미어 니트를 제조하고 있는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을 통해 의류를 생산해 왔지만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아 불만이 컸다. FTA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으면 협정관세율이 0%지만 불인정 시엔 13%의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 음부즈만은 현지에서 재단·봉제 공정없이 편성만 거친 편지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해 관세 부담을 낮췄다. 또 의류 원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도 지원했다.

교육부 소관인 ‘복합유통계입제공업 입지규제’도 합리화했다.

C씨는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리 PC방과 휴게음식점을 결합한 ‘복합유통계 입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건물 내 입지가 불가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계입제공업에 대해서도 학원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중기 음부즈만은 ▲산림레

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비금융회사 간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화확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등을 개선했다.

박주봉 음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육군 또 성추행... 계급 목록도

**“군 사기·군기 흔드는 심각한 발언”  
인격모독 등 민원 일부만 받아들여져**

최근 공군에서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여성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에서도 상급자가 동성인 남성 군무원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사를 연구하는 육군 산하의 연구소에 근무 중인 A씨는 9일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연구소장이 또 다른 군무원 B씨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군 계급에 대한 모욕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육군 대령 출신 연구소장, 부하 군무원 ‘기습추행’**

A씨는 해당 연구소 소속의 군무원이다. 그에 따르면 연구소장은 육군 대령 시절 연구과장직을 맡았고, 2019년 전역 후 같은해 임기제 2급 군무원으로 임용돼 연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에 연구소 인근 카페에서 업무 부담과 관련해 B씨와 면담을 한 뒤, 복귀하는 길에 연구서관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쓰여져 있다.

연구소장은 관용차 안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B씨를 기습추행했고, 10년 이상 육군에서 장기복무를 한 A씨에게는 ‘소련 안 달아 봤으면 군대 다녀온 것이 아니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구소장은 군 출신 군무원이 같은 신분의 장교 후배에게 장교단의 명예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망언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현·예비역 장교들은 ‘군의 사기와

군기를 흔드는 심각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고소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해 12월 B씨가 고충상담 민원을 법무부 인권센터를 통해 제기했지만 신상보호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지난 1월 26일 육군본부 감찰실 민원상담센터에 제기된 연구소장의 상습적인 인격모독·침해 행위 등에 대한 민원만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 1월 26일 제기된 민원 내용은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부적절한 호칭 사용에 대해 육군 차원에서 엄중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A씨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이 현재까지 접수된 사실은 없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장, 음주회식과 병력운동에도 문제 제기돼**

그렇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지난달 13일 ‘육본 산하 연구소, 계통대서 음주회식 신중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후, 해당 연구소 내에서는 영내 음주회식을 제보한 연구소 직원을 색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언론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영내 해당 연구소의 음주회식이 있던 일대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을 감시했다. 그렇지만 CCTV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철 기자 captin@



공영소평,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 결의식

공영소평은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CCM)’ 재인증을 앞두고 결의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공영소평 박진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오른쪽 5번째) 등 임직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소비자 중심경영’ 재인증을 위한 결의식을 갖고 있다.

/공영소평

## 코웨이, BTS 정수기 신규 광고 공개

정수기 선택 토크론회 편

코웨이는 지난 7일 방탄소년단을 광고 모델로 한 ‘정수기 선택 토크론회’ 광고를 새롭게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코웨이 광고 ‘정수기 선택 토크론회’편은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가 등장해 토크론회 형식으로 코웨이 정수기의 특징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면서 멤버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담아 매력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지난 5일 SNS 채널을 통해 미리 선보인 티저 영상은 공개 2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1만 뷰, 댓글 650개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메인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광고에서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이 토크론회를 이끌어간다. 아이콘 정수기 광고에 등장했던 진, 지민, 뷁과 A



코웨이가 선보인 방탄소년단 정수기 신규 광고 이미지.

IS 얼음정수기 광고에 등장했던 슈가, 제이홉, 정국이 각각 해당 정수기를 왜 선택 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의견을 말하는 장면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 광고에 대한 몰입도를 크게 높였다.

마지막에 RM이 ‘뭘 고민해? 뭘 선택해도 코웨이인데’라는 멘트를 통해 코웨이 정수기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을 보여준다.

/김승호 기자

## 유한킴벌리

### 숲 속 꿀잠대회 참가자 모집

유한킴벌리는 ‘제6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랜선 숲 속 꿀잠대회’(숲 속 꿀잠대회)에 참가할 지원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랜선으로 진행되는 이번 숲 속 꿀잠 대회는 숙면을 취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유한킴벌리 ‘우푸푸 인스타그램’ 또는 ‘우푸푸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의 꿀잠러를 선발하는 이색대회인 ‘우푸푸 랜선 숲속 꿀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Zoom)의 실시간 중계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참가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은 준수한 가운데 숲 속, 캠핑장, 차안, 자신의 방 등 참가자가 가장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잠스팟을 선정하고 대회기간 중 숙면을 취하면 된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60명의 참가자를 뽑을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여성벤처협

###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처)가 ‘2021년 여성벤처CEO 혁신아카데미’를 열었다.

9일 여벤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열린 행사엔 여성벤처기업인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여성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과 산업별 이슈 발굴, 해소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엔 ‘도전, 혁신, 상생’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및 네트워킹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택배노조 92.4% “총파업 찬성”... 일부 배송지연 불가피 /사진 뉴시스  
▲‘조국의 시간’, 출간 2주 만에 20만부 돌파

▲‘호날두 노쇼’ 입장객 또 일부승소... “50%·5만원씩 배상”  
▲‘남성 나체사진 유포’ 제2n번방 검거...피해자 1000명



▲이재명 “의원 12명 탈당권유,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 /사진 뉴시스  
▲나경원, 이준석 겨냥 “넘지 말아야 할 선 너무 자주 넘어”